industry p/11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신입사원 갈수록 '좁은 문'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2일 화요일 제3107호 www.metroseoul.co.kr

Life p/13

X MAS 슈퍼혜택

온라인마켓 연말행사 봇물

SC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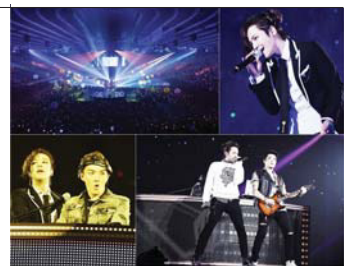
HUGH JACKMAN | RUSSELL CROWE | ANNE HATHAWAY | AMANDA SEYFRIED | EDDIE REDMAYNE | WITH HELENA BONHAM CARTER | AND SACHA BARON COHEN

SCREEN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레미제라블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life FX

12월 24일 [수] 밤 11시 TV최초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2일 화요일 제3107호 www.metroseoul.co.kr

7년만에 열린 한일 재계회의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4회 한일재계회의'에서 허창수(앞줄 오른쪽 네번째) 전경련 회장과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앞줄 왼쪽 세번째) 경단련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후 박수를 치고있다. 이번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관계의 냉각으로 2007년 이후 7년만에 열렸다. /뉴시스

이재용의 삼성 첫 인사, 안정 택했다

김현석·전영현·이윤태 사장 승진…역대 최소규모로
전자 톱3 유임, 실적부진 책임 물어 3명은 물러나

삼성그룹이 안정을 선택했다. 1일 실시한 사장단 정기인사에서 그룹 수뇌부와 주요 계열사의 수장을 유임시켰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3세 승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소폭의 사장단 인사에서는 경영실적에 따른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재확인했다.

삼성은 이날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부사장을 CE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총 11명 규모의 201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부근 CE부문 대표이사 사장,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모두 자리를 유지했다. 대표이사 3톱 체제를 이어가는 셈이다.

◆3세 승계 위한 전략적 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음 주도한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적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오너가 3세의 승진이 없었다는 점에서 삼성의 '안정' 코드를 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 부회장이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장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 체제를 중심으로 그룹의 안정을 다지는 쪽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오너가 3세인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모두 제자리를 지킨 가운데 이건희 회장의 사위이자 이서현 사장의 남편인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경영기획총괄 사장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으로 이동한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수뇌부인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김종중 전략1팀장(사장)도 자리를 지킨다.

사장 승진자가 3명에 그친 것도 눈길을 끈다. 매년 6~9명의 사장 승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토막 이하 수준이다. 지난해는 8명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승진자를 포함한 사장단 내 자리 이동도 예년에 비해 5~7명 감소한 11명에 불과하다.

그룹 주력인 삼성전자에서 각 사업부문을 지휘하는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도 유임됐다.

신종균 IM 사업부문장은 최근 중국 경쟁사들의 급부상으로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교체설에 휘말린 바 있다.

◆신상필벌 원칙 재확인

인사폭은 넓지 않았지만 성과주의 인사원칙은 그대로 적용됐다는 평가다.

삼성 TV를 8년 연속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려놓은 CE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김현석 부사장,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낸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인 전영현 부사장, LCD 개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삼성디스플레이 이윤태 부사장이 모두 사장에 선임됐다.

이에 반해 수익성 악화로 실적이 저하된 IM부문 무선사업부에서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김재권 무선사업부 글로벌운영실장, 이철환 무선사업부 개발담당 사장이 모두 물러난다.

삼성 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삼성전자 등 많은 회사의 실적이 부진해 인사 폭을 예년에 비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지만 성과주의 인사 원칙은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부사장·전무·상무급 후속 임원 인사를 이번 주 계열사별로 발표한다. 후속 조직개편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경기 동~서 횡단 첫 전철 27일 개통

파주~양평 환승없이 한번에!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양평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전철이 27일 개통된다.

경의선과 중앙선을 연결해 경기지역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횡단하는 첫 전철 노선이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경의·중앙선을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경의선 전철 미개통 구간(공덕~용산 1.9㎞)을 이날 개통하면서 용산에서 중앙선과 연결한다. 용산역은 경의선 전철 종착역이자 중앙선 전철 시발역이다. 코레일은 이를 연결해 경의선 전철을 타고 환승 없이 용산역에서 중앙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승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경의선을 하루 25편성에서 39편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현행 9분→8분으로 단축하고 전동차는 4~6량→8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의선과 중앙선이 연결되면 파주 운정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서울 중심, 구리·남양주·양평 등을 지나게 돼 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우기자 cyclon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공단 불…2시간만에 진화 1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0분께 진압됐다. 공장 2층 플라스틱 사출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은 3층짜리 건물의 2·3층을 모두 태우고 꺼졌다. 불이 나자 근로자 10여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광역 1호를 발령, 소방차 34대와 7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靑 문건 유출, 국기문란 행위”

박 대통령 “반드시 진실 밝혀야…부적절 확인되면 일벌백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그 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신임장 수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조윤수 주 터키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연계 시사

김무성 “정치는 딜”…주고받기식 현안 처리 예상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가동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여야간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빅딜설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며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현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현정기자

“내국인 고객도 대접받고 싶다”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유통부 차장>

“명동 매장에서 2000원짜리 퍼프(화장품 분첩) 하나 사면 손님 취급도 못받아요.”

“제품을 교환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다들 중국인 응대하느라 정신없더라고요.”

명동의 화장품 브랜드숍을 자주 이용한다는 지인들의 푸념이다.

최근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낮은 내국인 응대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의 경우 “한국 사람은 푸대접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한류 붐을 타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산 화장품을 선호하면서 명동의 빈자리는 화장품 매장들이 꿰차고 있다. 밀려오는 요우커들 덕분에 명동 지역 매장에서만 월 매출 수십억원을 올리는 브랜드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인 150명을 설문한 결과, '명동'(86.7%)을 가장 많이 찾고 쇼핑하는 데 '100만원 이상'(38.7%)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 품목 1위로는 화장품(86.7%)이 꼽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브랜드숍들은 중국어 가능한 사원을 전진 배치하고 매장 곳곳에 중국어 설명서를 비치해 요우커 모시기에 혈안이다. 그 탓에 '소심하게' 지갑을 여는 내국인들은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000원짜리 매니큐어 사는 내국인 10명보다 수십만 원어치를 사가는 중국인 1명을 응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씁쓸한 말을 남겼다.

물론 고객 서비스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류 붐이 사그라들거나 한·중 관계가 경색돼 반한감정이 불거질 경우 '우량 손님'은 '쪽박 고객'이 될 수 있다. 업체들이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버리고, 요우커와 내국인을 함께 보듬는 '균형 있는' 서비스를 펼치길 기대해본다.

뉴스&뉴스

이희호 여사 방북, 내년 5~6월로 연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 시기를 내년 5~6월로 연기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1일 “지난달 21일 북측과 실무 접촉한 이후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과 방북 시기를 검토한 결과, 의료진은 올 여름 폐렴으로 입원하고 두달 여간 투병한 이 여사의 건강 상태로 인해 추운 계절에 방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장에 이상원…고위직 인사 단행

●경찰청 차장에 이상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 자리로 승격된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청 차장에 이상원 인천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에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에 김종양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4명을 각각 승진·내정했다.

野, '종북 토크' 논란 신은미 토론회 취소

야당 국회의원 주최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던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가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종편이 신은미 씨를 근거없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신씨 측은 행사 당일 일부 극단적 보수 단체가 물리력을 동원해 충돌할 가능성과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토크콘서트의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는 4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신씨와 천주교 계열 민간단체인 '평화3000'의 박창일 신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일부 언론은 신씨가 최근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와 북한 기행문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현정기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오픈

첫날 거래량 54억 위안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열린 '원·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시장 개장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개장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조 외환은행장, 주장정 중국대사관 경제공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연합뉴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1일 문을 열었다.

이날부터 가동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국내에선 처음 도입된 것. 현재의 원·달러 시장처럼 평일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첫날 원·위안화는 개장가가 180.30원에 출발한 이후 180.7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은 외환시장팀 관계자는 "하루 거래량은 53억9500만 위안으로 원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원화와 위안화 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중간단계가 없어진 만큼, 거래가 편해지고 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은행은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홍콩 등에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다. 또 결제통화가 다양해지면서 변동성이 큰 한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 7월 한국과 중국간 원·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정상 합의로 추진됐다. 이번 시장 개설로 한국은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중국 외의 지역에서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갖게 됐다.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2010년 12월, 2012년 6월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실물부문의 한-중 FTA와 금융분야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향후 중국의 거대시장 선점의 '쌍끌이 동력'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장식에 함께 자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원·위안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위안화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09년 4월 처음으로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서 두 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통화스와프 규모는 중국 통화는 3600억 위안이고 원화는 64조원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성형 3명 중 1명 불만족"

절반 이상이 버스·지하철 광고 보고 찾아가

성형 수술이 늘고 있지만 올바른 정보 없이 해당 병원에서 노출시키는 광고에만 치우쳐 병원을 고르는 이용자가 늘면서 시술이나 수술 경험자 3명 중 1명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 6354건에 달했다. 특히 2011년 4045건이던 소비자 불만은 2012년 374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불만 접수 중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1만 136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거절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 22.1%(3612건),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3.2%(52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미용성형수술과 시술(이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불만족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32.3%(323명)는 성형수술 후 불만족을 경험했으며, 17.0%(170명)는 실제로 '비대칭·염증·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부작용으로는 비대칭이 9.4%(94명)로 가장 많았고 흉터·화상 5.7%(57명), 염증·감염 3.6%(36명), 색소침착 2.2%(22명), 통증 2.1%(21명) 등의 순이었다.

그렇지만 수술 경험자 부작용 발생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30.4%(304명)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를 확인한 결과, 버스·지하철 차량 내부가 56.8%(568명)로 가장 많아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시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일기자 prms@

담배 사재기 한달간 특별단속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주영기자

60세 이상 경비직 고용에 연 100억 지원

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와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주영기자 boa@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Nicaragua

del Estado de Minas ... en un mito que viaja ... solteros del mundo. M... que ah...

A 100 kilómetros de Belo Horizonte, en el estado de Minas Gerais (Brasil), una pequeña comunidad de mujeres que se dedican a la agricultura y la fabricación de prendas de lencería en el pueblo de Belo Vale, se ha vuelto un verdadero sueño para los solteros del mundo.

La razón es que las habitantes de Noiva do Cordeiro, nombre con que bautizaron su agrupación, publicaron un aviso en Facebook solicitando hombres, de cualquier nacionalidad, para casarse debido a que donde viven "no hay suficiente para todas".

La oferta no deja de ser tentadora. Más aún si se considera que se trata de un "grupo aproximado de 60 mujeres, todas de entre 20 y 40 años, guapísimas, simpáticas, coquetas y algo tímidas", como las describe Marcelo Araya, periodista de la revista "Mucho Gusto" de la TV chilena, quien viajó hasta Brasil para comprobar la veracidad de la historia.

Sin embargo, antes de dar el sí y embarcarse en la aventura del matrimonio, los hombres deben asumir dos reglas que son obligatorias al interior de la comunidad.

En primer lugar, las mujeres mandan en todo orden de cosas y son ellas las que gobiernan, en una especie de matriarcado moderno. Y la segunda es que los hombres deben adaptarse a la vida agrícola. Es decir, trabajar la tierra y vender las cosechas a los mercados mayoristas cercanos en Belo Horizonte para así generar dinero y fa-

metro France

...és depuis deux mois, les enfants ...t maltraités

...RS – Originaires d'Amérique du Sud, les bambins présen... ...es de violences. Les parents, qui habitent Lyon, ont été ...au parquet.

입양한 두 아이 때려 체포

최근 프랑스 리옹에서 38세의 남성이 아동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의 5세 입양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아이의 몸에서 심각한 상처들을 발견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동갑 남자 형제에 이에 관해 물었고 조사 결과 남자 아이 역시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들은 남미 출신으로 입양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한 회사의 대표인 이 남성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어 능력을 잃었다고 해명했다.

metro Portugal

...lais poupanç... ...os presentes

...ltimo estudo do ...dor Cetelem revela ...mais portugueses ...enção de poupar ...os prendas deste ...ce a igual período ...passado (23%).

크리스마스 기간 지출보다 절약

포르투갈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저축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600명의 포르투갈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성탄절 기간에 35%의 포르투갈 인들이 지출보다는 절약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8%만이 저축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작년 대비 17%P 상승한 수치다. 저축을 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25~34세였으며 응답자 중 43%가 소비보다는 절약을 선택했다.

'여인국' SNS에 공개 구혼 화제

브라질 이색 마을 600명 주민 모두 여성…20~40대 전 세계 총각들 향해 구애

'젊고, 아름답고, 착하고, 재주도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찾습니다.' 브라질 '여인 마을'의 온라인 공개 구혼이 화제다.

전 세계 남심을 뒤흔든 이 마을은 브라질 남동부의 노이바 도 코르데이로. 주민 600여 명이 여성이다. 마을 규칙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반드시 타지로 떠나야 한다. 일부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과 따로 산다. 주말에만 남편의 방문이 허용된다.

최근 20~40세 여성들은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에 단체로 공개 구혼 광고를 올렸다. 마을에서 신랑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고 대상은 국적 불문 세계 각국의 총각들이다. 배우자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여성 중심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잘 이해하면 된다.

이 곳 여성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집수리를 하는 등 남성 못지 않다. 한 여성은 "밭을 일구는 일부터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까지 여성들이 중심이 돼 모두 함께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인천하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아직 남자와 뽀뽀도 한 번 못해봤지만 이 곳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멋진 총각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마음에 드는 신붓감을 찾고 프러포즈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이바 도 코르데이로가 '여인국'이 된 것은 한 목사 때문이다. 1940년 이 마을 여성과 결혼한 목사는 여성들에게 엄격한 교리와 규칙을 강조했다. 피임을 금지했고 여성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머리 자르는 것까지 못하게 했다.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그를 몰아냈고 마을에서 종교와 남성의 통치를 금지했다.

한편 노이바 도 코르데이로의 여성들은 화려한 쇼와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마을 여인들은 매년 패션쇼를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를 열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마우리시오 사파타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중국 항저우 도서관 노숙자에 개방 눈길

중국 항저우 도서관에 새로운 이용객이 생겼다. 바로 갈 곳 없는 노숙자와 폐지 줍는 노인이다.

매일 오전 8시 도서관 앞에는 마대자루를 걸치고 있거나 남루한 모습으로 음료 수병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도서관 문이 열리면 이들은 잡동사니를 밖에 두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다.

노숙자는 문 닫는 시간까지 도서관을 떠나지 않는다. 자유롭게 독서를 하고 무료 영화와 인터넷 서핑도 즐긴다. 노숙자에게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니다. 이들에게 도서관은 세계를 이해하고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이다. 이 창을 제공한 항저우 도서관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도서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량량 부관장은 "항저우 도서관은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의 회원으로서 공공도서관은 민족, 연령, 신분에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노숙자들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개방 취지를 밝혔다.

물론 노숙자 이용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는 노숙자에게 나는 냄새에 불만을 표했다.

량량 부관장은 이에 대해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면 된다. 노숙자를 내쫓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돋보기 대여, 장애인 책 배송, 맹인 영화 서비스 등 더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저우 도서관은 면적 중 90%를 이용객에게 개방한다. 전 세계에서 개방률이 가장 높은 공공도서관이다. 매년 이용객수는 300만 명이 넘는다. /정리=조선미기자

“짧은 15초 광고에 심오한 메시지 담았죠”

“제품에 대한 애정이 아이디어의 시작”

사람이야기

■ ‘의리 열풍’ 탄생시킨 권덕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양한 삶의 순간과 감정을 담은 광고 메시지에 우리는 웃고 울고 공감한다. 15초의 광고가 전하는 숨겨진 의미에 당신의 인생,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세상을 담을 것이다.”

무미건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광고’다. 모든 광고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감성이 담겨 있다.

올해 재미있는 광고 하나가 ‘의리’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배우 김보성이 과장된 남성성을 뽐내며 ‘으리!’를 외쳤던 팔도 비락식혜 광고는 대중에 공개된 이후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다.

‘진지하게 웃긴 광고’를 만들어낸 독립광고 대행사 코마코(komaco)의 권덕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만났다.

◆ 전국을 강타한 ‘의리’ CF

이 광고를 제작한 코마코는 개그맨 김준현이 출연해 최초로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로 화제를 모은 팔도 왕뚜껑 광고, 배우 류승룡의 ‘더티 섹시’ 열풍을 일으킨 팔도 남자라면 광고, ‘으리 식혜’ 김보성 편까지 ‘상남자 3부작’을 만든 광고 기획사다.

권 감독은 2004년 스카이 뮤직폰 클럽 신을 패러디한 팔도 왕뚜껑 CF로 동시대 CF를 최초로 패러디한 장본인이다. 2005년 왕뚜껑 ‘치마’ 황보라 편에 이어 지난해엔 이병헌의 휴대폰 CF를 패러디한 김준현의 ‘단언컨대’, 그리고 ‘남자라면’ 류승룡 편으로 히트를 쳤다.

비락식혜 광고는 “김보성의 의리 시리즈가 유행”이라는 막내 팀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인지도는 있지만 관심도는 떨어지는’ 비락식혜를 젊은 층에게 권하고자 했던 팔도의 의도와 꼭 맞는 발상이었다.

그는 “여기에 건강 음료 이미지를 녹였다. ‘몸에 좋다’를 ‘몸에 대한 의리’로 변신시킨 것이 창의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광고로 인해 ‘왜 우리 사회에 의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함까지 이끌어냈다. 왜 하필 ‘의리’였을까.

“‘아메으리카노’ ‘우리집 으리 음료’처럼 재밌게 패러디하는 일종의 ‘으리 놀이’에 동참한 사람이 많았고 김보성씨를 상징으로 한 ‘잊힌 남성성’에 대한 향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의리’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삼 의리가 주목받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에 의리가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무심히 지나친 짧은 15초 광고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 소비자 마음 먼저 열게 만드는 ‘좋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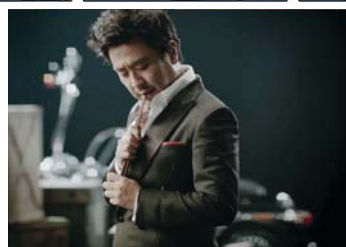
권 감독의 기발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제품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거죠. 제품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끈기’를 꼽았다. 무조건 ‘짠’하고 아이디어가 솟구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광고 기획이나 제작을 할 때뿐 아니라 소비자 변화를 조사할 때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시장 조사나 유행 파악을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들여다 보며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민감해져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좋은 광고’는 어떤 것일까.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어야죠. 소비자가 잘 이해하고 정서를 반영할수 있는 광고가 좋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비락식혜 바이럴 콘티에 들어간 삽화(위)와 ‘비락식혜’ 김보성 편, ‘남자라면’ 류승룡 편, ‘왕뚜껑’ 김준현의 ‘단언컨대’ 편의 CF 속 장면.

올해 ‘의리’ 광고로 ‘대박’을 낸 독립광고 대행사 코마코의 권덕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아차 질주…11월 26만7734대 팔아

전년보다 4.1% 포인트↑

기아자동차가 지난 11월 국내 판매에서 2012년 12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차는 11월 국내 4만4500대, 해외 22만3234대 등 총 26만773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차의 11월 판매는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 판매가 2012년 12월(4만6514대) 이후 2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해외 판매도 호조를 이어가 전체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다.

노조 파업의 영향을 받았던 전월 대비로는 국내 판매가 20.3% 증가했고, 해외 판매는 14.7%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15.6% 증가했다.

국내 판매는 올 뉴 쏘렌토와 올 뉴 카니발이 신차 효과를 이어가며 모닝, 스포티지R, K3, K5 등 주력 차종과 함께 판매를 견인, 작년 대비 14.2% 증가했다.

올 뉴 쏘렌토는 지난달 6157대가 팔리는 한편, 11월 한 달간 계약 대수도 6500여대를 달성해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올 뉴 카니발 역시 4751대가 팔렸고, 계약 대수는 5800여대에 이르며 신차 효과를 이어갔다.

특히 올 뉴 쏘렌토와 올 뉴 카니발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생산 차질의 영향으로 출고 대기 물량이 각각 9000여대와 1만2000여대다. 출고 대기기간도 각각 한 달반, 두 달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차종별로는 모닝, 봉고트럭, K3, K5가 각각 9347대, 5620대, 4643대, 3909대 팔리며 국내 판매 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기아차 모닝은 9677대가 팔렸던 2011년 10월 이래 37개월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11월 국내 자동차 시장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했다.

1~11월 기아차의 누적 국내 판매 대수는 41만7182대로 41만6979대를 판매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 증가했다.

기아차의 11월 해외 판매는 국내생산 분 10만8688대, 해외생산 분 11만4546대 등 총 22만3234대로 작년 대비 2.3% 증가했다.

국내공장생산 분은 프라이드, K5, 쏘울 등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국내 판매 물량 공급으로 인해 작년 대비 1.3% 감소했다.

해외공장생산 분은 현지 전략형 차종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작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해외시장에서 K3가 3만8822대, 스포티지R이 3만2990대, 프라이드가 3만2313대, K5가 2만4783대 팔리며 뒤를 이었다. /임의택기자

LG전자 ‘코드제로’로 해외 공략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CordZero)’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코드제로’ 청소기 출시 행사를 열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초 편의성과 가격 수용성을 겸비한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를 먼저 출시하고 최고급 모델인 무선 진공청소기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코드제로’ 청소기를 해외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유럽 등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사전 고객 조사를 통해 러시아 시장을 ‘코드제로’ 전략 시장으로 선정했다. 무선 청소기에 대한 고객 수용도가 높은데 반해 진입 브랜드와 제품이 거의 없고 특히 국민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만큼 현지 무선 청소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코드제로’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는 핸디형과 스틱형 청소기를 결합한 ‘투인원(2 in 1)’ 타입으로, 교체 가능한 ‘듀얼 리튬 배터리 팩’을 제공해 최대 7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스틱 청소기 흡입구 전면에 LED 조명을 적용해 어두운 곳에서 유용하고, 핸디형 청소기는 ‘빌트인 브러시’를 제공해 틈새 청소에 편리하다.

신석홍 LG전자 청소기BD(Business Division)담당은 “국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코드제로’ 청소기를 내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market index <1일>

코스피 1965.22 (-15.56)
코스닥 539.45 (-5.63)
금리(국고채 3년) 2.07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10.70 (+2.20)

뉴스&뉴스

눈·비 걱정없는 아동부츠 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해 100% 방수와 물세탁이 가능한 보그스 아동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스마트폰 승부처는 '카메라'

삼성 갤S6 2000만 화소 탑재할 듯 애플·MS·소니도 초고성능 개발 중

2015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카메라 성능'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MS, 소니 등 글로벌 모바일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은 물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여행이나 일상에서 별도의 카메라를 휴대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메라 고사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 로컬폰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 업체들은 올해 800만 화소 전면카메라를 탑재한 제품을 시장의 주류로 내세웠다.

이에 최근 김지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카메라 사양을 대폭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는 후면과 전면에 각각 2000만·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면카메라의 비약적 업그레이드(S5 200만 → S6 800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갤럭시 S시리즈는 후면 카메라 부분에서는 항상 최고 사양을 탑재하며 글로벌 표준을 만들었지만 전면 카메라의 기술 주도에는 다소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갤럭시 S2부터 탑재한 200만 전면 카메라를 S5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월 국내 출시한 카메라 특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K 줌'은 2070만 화소 후면 카메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뛰어난 화소와 그립감으로 호평받았다. '유럽영상음향협회(EISA) 어워드'에서 올해 신설된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애플도 2011년 출시한 아이폰 4S부터 올해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까지 후면과 전면 각각 8M·1.2M 카메라를 탑재했다. 꾸준히 고화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애플 역시 내년에도 카메라 성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S는 4100만화소 '루미아 1020'보다 같거나 더 큰 카메라를 탑재한 새 루미아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해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중국의 경매 사이트에 '윈도우 8.1 기반의 노키아 RM-1052', '램 2GB', '5인치 1080p 디스플레이' 등의 정보가 적힌 루미아 사진이 유출됐다. 이 휴대폰에는 대형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 보인다.

소니도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보다 이미징 센서 분야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니는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에서는 선도적인 공급 업체 중 한곳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2015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선불폰 불법 개통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해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검·경에서도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아프리카TV, BJ페스티벌

● 올해 최고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뽑는 '2014 아프리카TV BJ 페스티벌'이 열린다.

아프리카TV는 2014 아프리카TV BJ페스티벌을 23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14일까지 시청자 투표와 방송 데이터,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실시간 온라인 투표와 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상 수상자 2인이 최종 결정된다. /장윤희기자

'직구 수입품' 국산TV들 1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검사장에서 직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기간을 맞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수입한 국산 텔레비전 등의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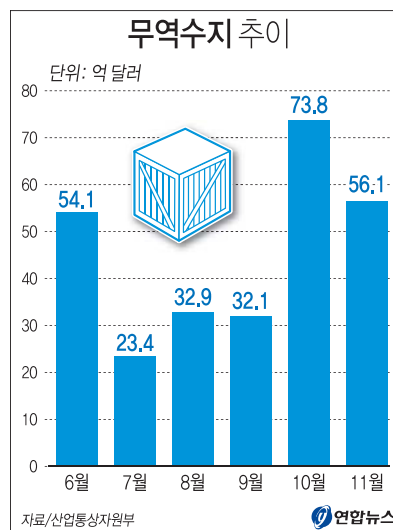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

넓어진 경제 영토 덕분

우리나라가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7분에 수출 5202억 달러, 수입 4798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특히 11월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5일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첫 달성했다. 이후 2012년 12월10일, 2013년 12월6일에 1조 달러를 잇달아 넘어섰다.

올해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조기 달성한 것은 주요 경제권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경제 영토'를 넓혀나간 성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이 5750억 달러, 수입은 53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2.8%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무역규모(1조1000억 달러 내외)와 수출규모, 무역흑자(45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 부진에다 엔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무역규모 1조 달러는 미국이 1992년에 처음으로 달성한 이후 독일(1998년), 중국·일본(2004년), 프랑스(2006년),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2007년)에 이어 우리나라(2011년)가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했다. 홍콩은 우리보다 1년 늦은 2012년에 1조 달러를 넘었다.

/이국명기자 kmlee@

네이버 최다 검색 '다음' 모바일 검색 1위 '날씨'

올해 네이버 최다 PC 검색어로 경쟁사 포털 '다음'이 선정됐다.

네이버는 연초부터 11월까지의 검색량을 기준으로 자사 PC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입력된 검색어를 1일 밝혔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최다 입력된 인기 키워드는 PC 부문 '다음', 모바일 부문은 '날씨'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앞서 발표된 다음의 최다 검색어로는 '네이버'가 선정돼 경쟁사끼리 최다 검색어 이름을 올리는 이색 결과를 낳았다.

전년도에 비해 검색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키워드의 경우 PC 부문은 '세월호'가 선정됐다. 모바일 부문 최다 키워드는 '날씨'로 PC 검색 결과와 같았다.

부문별 올해 네이버 최다 검색어로는 '김연아'(인물), '비밀의 정원'(책), '겨울왕국'(영화), '렛잇고'(음악), '별에서 온 그대'(드라마), '무한도전'(예능), '브라질월드컵'(스포츠)이 선정됐다.

한편 구글코리아가 꼽은 올해 최다 검색어는 '날씨'다. 날씨의 연간 검색량은 봄과 여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옥션·지마켓·보배드림·겨울왕국·쿠팡·알바천국·11번가·뽐뿌·루리웹 등도 네티즌들이 구글에서 많은 찾은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장윤희기자 uniqu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보험사, 불완전판매율 줄이기 비상

메트라이프 e모니터링 도입… 신한·삼성 등 고객 응대 교육 강화

issue&view
금감원 GA감시지표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품을 속여 판매한 푸르덴셜생명의 전속설계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완전판매율을 높이고 고객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불완전판매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 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판매자가 계약 체결 시 하자가 존재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온라인·모바일 고객만족도 조사 서비스인 'e모니터링'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조사가 일부 단순 상품에 국한된 데 따라 전 상품에 대해 세부적인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민원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 고객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본사·지점·콜센터 등의 고객접점 담당자가 접수한 고객 불만 사항은 확인부터 처리완료까지 모든 조치사항을 '고객의 소리(VOC)'에 기록·관리·공유된다.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민원협의회가 참여하는 소비자 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과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 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은 고객 응대부서를 개편한 데 이어, 한화생명은 주요 부서의 파트장급으로 구성된 '완전판매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고객의 소리(VOC)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교보생명도 완전가입 우수 조직에 대해 선발 시상하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KB생명은 10월부터 청약 프로세스 개선, 설계사 완전판매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은 예상민원 도우미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19일 금감원으로부터 소속 설계사 2명이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750만원의 제재를 받은 푸르덴셜생명도 윤리적 판매 강화와 종신보험 판매 시 계약자 가족에게 설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 강화를 비롯해 최근 보험사 최고의 화두는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불완전 판매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각 업체들이 다양한 제도 활용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일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표에 따라 금감원은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 중 하위 30%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내년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자녀인적공제는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과표 7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세율 15%)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줄게 된다. 이에 반해 과표 1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환급받지만, 세액공제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늘게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신영마라톤아시아밸류펀드' 출시 신영자산운용은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저평가 가치주 기업에 투자하는 '신영마라톤아시아밸류펀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펀드는 지난 2007년부터 운용해온 '신영한중일밸류펀드'의 자문계약 종료에 맞춰, 투자대상과 운용방식을 일부 변경한 상품이다. /신영자산운용 제공

'IBK 평생설계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 1일 은퇴에 특화된 'IBK평생설계통장'을 출시했다. 은퇴를 했거나 준비하는 만 40대 이상 고객을 위해 마련된 '평생설계통장'은 입출금식과 적립식, 거치식(일반·연금형) 등으로 구성됐다. 입출금식은 은퇴 후 연금이나 용돈, 월세소득 등 고정 수입이 있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4대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이 통장으로 수령하면 5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8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은 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업은행 제공

하영구 회장 "마부위침의 자세로 정진"

하영구(사진) 신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1일 "수수료 수익기반의 확대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적정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저성장과 저금리, 규제환경 속에서 불과 3년만에 은행의 수익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며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커져야만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지원, 창조금융지원 등 사회적 책무 수행과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이 실물경제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은행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원은행과 정책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없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특히 "은행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제·개정 시에 균형잡힌 은행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금융사고 등을 통해 지적된 고객 신뢰문제도 언급됐다. 그는 "고객의 신뢰 없이는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책임이 은행의 주요한 전략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그는 이어 "막중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유가 급락에 웃는 항공·해운주

아시아나 11% ·한진해운 9% 급등…제주항공 내년 상장 호재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항공주와 해운주가 모처럼 반등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감산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유가 약세 수혜주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켰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은 6% 가까이 상승했고 아시아나항공은 11% 넘게 급등했다.

저비용항공(LCC) 관련주인 티웨이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AK홀딩스는 3% 넘는 오름세로 닷새 연속 상승 행진을 이었다.

AK홀딩스의 경우, 지주사로 있는 애경그룹이 제주항공의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또 다른 호재로 작용했다.

해운주도 들썩였다. 한진해운과 한진칼이 각각 9%, 6%대 올랐고 대한해운도 5% 이상 상승했다.

지난달 2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66.15 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7.54 달러(10.2%) 급락했다.

이는 지난 6월 배럴당 107 달러까지 올랐던 것에 비교하면 38%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저치다.

시장에서는 OPEC이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에 대항해 현 생산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키로 하면서 당분간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세계 성장률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OPEC의 이번 조치로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하락하리란 전망을 내놨다.

과거 1985~1986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증산으로 유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전례를 제시했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제 유가 가격이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유가가 계속 낮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은 항공·해운 업종에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연 평균 항공유가가 배럴당 1 달러 떨어질 때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6.9%, 9.2%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운업종도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로 이익 증가 기대감이 있다.

다만 앞으로 항공·해운주에 대한 접근은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해운업종의 실적이 유가 하락을 반영해 개선될 수 있겠지만 운임 등은 공급과잉으로 썩 좋지 않다"며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적으로 상황이 나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고유가시대가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연초만 해도 이런 유가 전망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며 "유가나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내년 이런 변수를 빼고서도 펀더멘탈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아빠와 외국인도 쉽게 사용" 신한은행은 1일 더 편리한 스마트폰뱅킹을 위해 '신한S뱅크 미니(mini)'를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인 '신한S뱅크 미니'는 ▲거래 프로세스 단축을 통한 편리성 증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업그레이드 ▲중장년층과 외국인 고객의 스마트뱅킹 접근성을 중점으로 개선됐다. /신한은행 제공

ING생명 '스마트앱어워드 2014' 대상

ING생명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스마트앱어워드 2014'에서 사용자환경(UI), 사용자경험(UX)부문 이노베이션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인터넷전문가 2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평가심사를 통해 우수 스마트앱을 선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수 모바일앱 시상식이다.

ING생명의 모바일센터 앱은 평가에서 ▲독창성과 차별성 ▲직관성과 사용편의성 ▲정보구조의 적절성 등을 높게 인정 받았다.

이 앱은 내비게이션, 아코디언/탭 UI 기능을 사용, 메뉴 간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앱을 활용하면 고객들은 계약조회부터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보험료납입·펀드변경 등 금융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호준 ING생명 콜센터부 부장은 "직관성 높은 UI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했다"며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나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1일 오전 통합 하나카드 출범식에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가운데)과 하나카드 정해붕 사장(김 회장 왼쪽)등이 임직원과 함께 '국내 톱 카드사로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하나카드 권혁승 부사장(김 회장 오른쪽)을 비롯한 하나은행 김병호 행장(왼쪽 세번째), 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왼쪽 네번째), 유준상 하나카드 노조위원장(구 하나SK카드, 왼쪽 두번째), 정종우 하나카드 노조위원장(구 외환카드, 왼쪽 첫번째) 등이 참석했다. /하나카드 제공

통합 하나카드 출범

"2025년 톱 클래스 회사로 도약" 다짐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하나카드로 통합됐다.

1일 통합 하나카드는 이날 오전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내 톱 카드사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통합으로 하나카드의 회원수는 520만명(개인 신용카드 기준)에 자산 6조원, 연간 매출 50조원에 이르는 국내 카드시장 점유율 8%의 중견카드사로 거듭나게 됐다.

하나카드는 지속성장을 위해 규모의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ICT 기반 모바일결제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 매출 140조원, 순익 5000억원, 시장 점유율 15%의 톱 클래스 카드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조직도 정비됐다. 하나카드의 조직은 7본부 42개팀 4지점으로 브랜드관리팀과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결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마케팅팀 등이 신설됐다.

또 SK전략제휴팀을 통해 SK텔레콤과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도 이어갈 전략이다. 직원들의 원활한 융합과 하나된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변화관리 TFT'를 별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양사 출신 직원의 서로 다른 직급과 승진, 보상 체계는 노사간 별도 합의 시점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 전이라도 직원 복지 등 통합 가능한 부분은 즉시 적용하고, 노사 합의 시점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IT통합은 내년 7월 완료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통합 하나카드의 출범은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인수 이후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등 실질적인 통합 시너지를 발현해 비은행 부문이 그룹이익의 30%를 차지하는 하나금융그룹 미래 청사진의 중심에 하나카드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이순우 우리은행장, 연임 포기…"소임 다했다"

이순우(사진) 우리은행장이 연임 포기의사를 밝혔다.

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이날 오후 늦게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민영화를 위한 발자취를 돌이켜 볼 때 이제 맡은바 소임은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회장 취임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라는 최대의 숙명적 과제를 안고 은행장 소임을 맡은지 벌써 3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며 "우리금융그룹내 계열사 매각 등의 순차적인 민영화 작업끝에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 행장은 이어 "최근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고객님들과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해 애쓴 노동조합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해왔던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소수지분매각 청약율 130%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장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로 우리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2일 은행장 후보 면접 대상자를 추천한 후 5일 심층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단통법 시행 60일…"대폭 개선해야"

분리공시제 도입·보조금 상한선 상향 필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서 네번째)은 1일 참여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 –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제자로 나서 "단통법이 두 달여 시행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고 있는 만큼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는 만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는다"면서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서 약정기간이 끝난 일부 고객들은 추가 약정을 할 경우 12%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고지가 되지 않아 본인이 대상자인이 알지 못하는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당국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기에 공적 규제 장치로 단통법은 그 의미가 있다며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분리요금제에 따른 통신요금 할인 폭(12%) 대폭 확대 ▲보조금 상한 상향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이통사의 기본요금제 폐지 ▲알뜰폰의 망 도매요금 대폭 인하 등을 주장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현행 단통법의 공시제도와 관련, 간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단통법 이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중 하나가 단말기 모델 별 공시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라며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이 70~100여종에 달하는데 일주일을 주기로 공시가 이뤄져 매일같이 단말기 가격이 춤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이었는데 이는 2010년 단말기 평균 가격이 40만~50만원이던 당시 정해진 것"이라며 "지금은 70만~100만원 이상의 고가폰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고작 3만원 상향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근 통신시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혜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미래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100% 단통법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류 과장은 "오늘 토론 내용을 향후 단통법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이 큰 방향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시장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모니터 시장 '전문가용'으로 재편

고해상도 수요 꾸준히 늘어

최근 전자업체들이 고해상도·고성능의 전문가용 모니터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 모니터는 모바일 기기의 성장과 PC 시장의 하락세에 시장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그래픽 디자이너, 사진 작가 등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까지 프리미엄급 모니터를 찾는 고객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용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에 비해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적게 팔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업계는 전문가용 모니터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선보이고 TV 등 관련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풀HD보다 4배 많은 화소의 UHD 해상도를 지원해 고화질의 4K 콘텐츠 제작과 편집이 가능하다. 또 일반 모니터의 65배 수준인 10억개 이상의 색 표현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전문가급 소비자들의 사용패턴을 고려해 모니터를 간편하게 세로로 바꿀 수 있는 피봇 기능, 제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 등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4K UHD 모니터 'UD970'을 선보이고 미국 UL과 독일 TUV라인란드로부터 업계 최초로 UHD 화질에 대한 성능을 인증 받았다. 이 제품은 색 표준 규격인 어도비 RGB를 99.5% 지원해 10억개 이상의 색상 표현력을 갖춰 그래픽 디자이너 또는 사진작가 등의 고화질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적합하다. UL과 TUV라인란드는 이 제품에 대해 색·밝기의 균일성, 색 표현력, UHD 해상도 등의 기본 측정과 함께 어도비 RGB 색영역, 10억 컬러 등을 평가해 성능을 인증했다.

LG전자가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한 '31MU97' 역시 극대화된 화질과 색 재현력을 갖춘 4K UHD 모니터다. 디지털 시네마 표준을 제정하는 DCI의 4K 표준 4096×2160 해상도를 지원하며 어도비 RGB 99.5% 및 디지털 시네마 색 표준인 DCI-P3 97%를 지원해 10억 개 이상의 컬러를 표현한다. 직접 색상값을 보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 한 개의 화면에서 두 가지 색 영역을 비교할 수 있는 듀얼 컬러 스페이스 기능과 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용 디지털 영상 통신표준인 다이콤 기능을 지원한다.

델도 최근 4K UHD 모니터 'P2715Q'를 출시했다. 3840×2160 해상도에 선명한 화질, 넓은 화면이 특징이다. 델 모니터 역시 RGB 99%의 높은 색 재현율을 보인다. 애플리케이션 배열 기능인 '델 이지 어레인지'로 다중 작업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여러 입력 포트로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삼성전자 의료기기 신기하네" 삼성전자는 오는 5일까지(현지시각)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14 북미영상의학회'에 참가, 확대된 의료기기 제품군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이 초음파 영상진단기 'RS80A' 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폰 등 '해외 직구' 전파인증 단속 유예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 중개와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과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스마트폰을 포함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전파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추가 법 재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해 국민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일부터 신설되는 개정 전파법 제58조2 제10항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마련됐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단말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를 추진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신형 제타'로 수입 소형차 1위 굳히기 전략

폭스바겐, 디자인·성능 업그레이드…3150만~3650만원 책정

폭스바겐 코리아가 소형차 '제타(Jetta)'를 새로 단장하고 수입 소형차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폭스바겐은 1일 서울 도심공항터미널 광장에서 '신형 제타'를 공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2006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제타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 1만2000여대를 기록하면서 수입 소형차시장 1위를 기록 중인 모델이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3293대가 판매돼 동급에서 65.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동급에서 아우디 A3는 1104대가 판매됐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CLA는 1047대, 포드 포커스는 341대가 팔렸다.

신형 제타는 차체 사이즈(길이 4660mm, 너비 1780mm, 높이 1480mm)를 키우면서 앞뒤 디자인을 새로 손봤다. 제타 최초의 바이제논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프리미엄 모델)를 적용하는 한편,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과 공기 흡입구로 이미지를 바꿨다. 이를 통해 공기저항을 기존 모델보다 10% 줄였다.

실내 분위기도 대폭 바꿨다. 새로운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 내장재를 적용해 기존 모델보다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6개의 에어백이 기본 장착됐고, 새롭게 디자인된 사이드 에어백은 머리와 목을 보호해준다. 차체 안전도는 한층 강화해 북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폭스바겐이 1일 공항도심터미널에서 신형 제타를 공개했다.

엔진 라인업은 2.0 TDI 110마력과 150마력 두 가지를 갖췄다. 기존에 있던 105마력 1.6 TDI 엔진을 없앤 대신 110마력 2.0 TDI 엔진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 이에 대해 폭스바겐 코리아 고재용 차장은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는 새 엔진으로, 향후 미국에서 적용될 LEV3(초저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엔진"이라며 "디젤 엔진은 다운사이징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 엔진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150마력 엔진은 1750~3000rpm의 영역에서 34.7kg·m의 최대 토크를 뿜어내며, 0→100km/h 가속시간은 8.9초다. 최고시속은 218km이고 연비는 도심 13.8, 고속 18.1, 복합 15.5km/ℓ다. 동적 코너링 라이트가 추가됐으며 가격은 3650만원이다.

110마력의 블루모션 모델은 7단 DSG 변속기와 조화를 이뤄 도심 14.4, 고속 19.4, 복합 16.3km/ℓ의 뛰어난 연비를 자랑한다. 최대토크는 25.5kg·m이고 최고시속은 197km다. 가격은 3150만원이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은 "신형 제타가 처음 수입차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신형 제타 출시로 제타(세단)-골프(해치백)-티구안(SUV)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해 수입차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KT, 통신비 할인되는 '슈퍼 카드' KT는 신한·현대·KB국민·롯데·BC·IBK기업은행·JB전북은행 등 국내 주요 카드사와 제휴해 이동통신비 할인 혜택을 주는 '슈퍼 세이브 카드'와 '슈퍼 DC카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KT 제공

넥슨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모집

넥슨은 프로그래머 인재 발굴을 위한 '넥슨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휴학생은 누구나 넥슨인 홈페이지에서 22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다. 넥슨은 서류전형, 필기 시험,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참가자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해외 인턴십 종료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상금을 받는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넥슨 공채 서류심사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임형준 넥슨 인재선발팀 팀장은 "넥슨 글로벌 인턴십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게임 개발에 무한한 열정을 지닌 대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신입사원 갈수록 '좁은 문'

기업 40% "실무 투입 경력 뽑겠다"

"나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면접 전쟁' 동영상. 면접관이 '우리는 경력자를 원한다'고 말하자 구직자가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는다!'며 버럭 화를 낸다. 취업 세태를 풍자한 이 영상은 조회수 40만건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4곳은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1일 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40.4%가 '올해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

신입 대신 경력직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실무 인력의 부족'(36.6%·복수응답)이었다. 신입사원을 교육 시킬 여건이 부족해 당장 실무에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어 '인건비 절감'(34.4%), '신입직은 조기 퇴사율이 높음'(22.6%), '필요 인원만 충원하기 위해'(20.4%), '경력직 만족도가 더 높음'(17.2%) 등이 경력직 선호 이유로 거론됐다.

한편 기업의 69.6%는 신입 대신 경력직을 채용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만족 이유 1위는 '뛰어난 업무 숙련도'(87.7%·복수응답)였다. 2위는 '투자대비 효율성 높음'(26.2%), 3위는 '빠른 조직 적응력'(18.5%)이 차지했다.

임민욱 사람인 홍보팀 팀장은 "경력자는 성과 내는 속도가 빨라 가장 요인"이라며 "하지만 무슨 경력이든 우대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 기업이나 직무를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작은 경험이라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아파트가 스스로 재난·범죄 예방한다

'공동주택 화재 안전가이드' 탑재하고 침입자 발생때는 자동 점등·영상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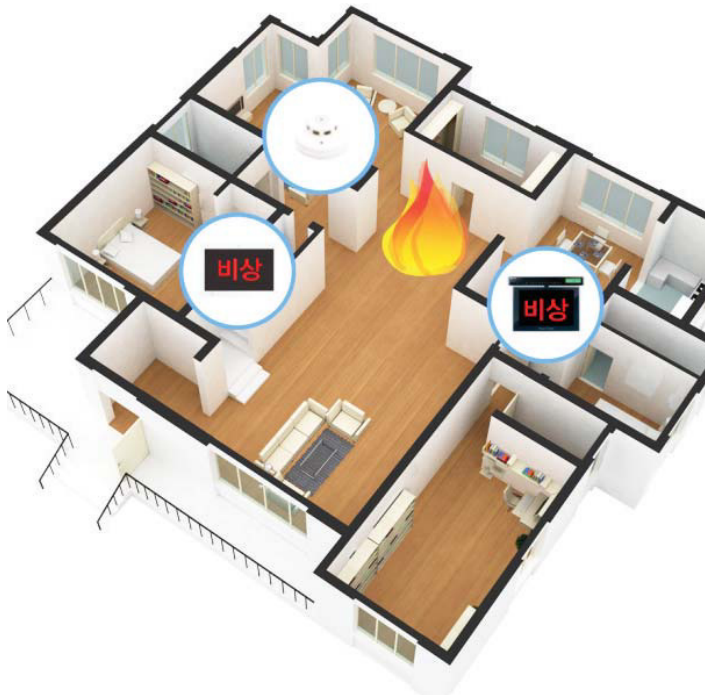
세월호부터 싱크홀까지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택업계에서도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튼튼한 것은 기본이고, 설계 단계서부터 재난에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화재 발생시 콘크리트가 고온에 노출돼 파열하는 '폭열' 현상을 막기 위해 폭열방지 공법을 적용한 고강도 콘크리트로 시공했다.

또 불이 위층으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커튼월과 슬래브 사이를 2중의 층간 방화 구획으로 시공했다. 앞서 지난 2010년 해운대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 4층에서 발생한 불이 20분 만에 37층까지 번졌던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 C3블록의 '펜타힐즈 더샵'은 거실 벽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소방 방재청의 협조를 받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탑재했다. 이 가이드는 화재시 대피요령를 비롯해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구성됐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비상경보가 울리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입주민이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예방에 발 벗고 나선 아파트도 있다.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의 '힐스테이트 영통'은 범죄예방 설계기법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건설이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를 위해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펜타힐즈 더샵'에 적용했다. 그림은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가 화재발생 경보를 알리는 가상 이미지.

한국셉테드학회가 주관하는 셉테드는 단지 내 범죄 위험요인 172개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범죄 안전 인증이다.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억제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심사한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식재 높이를 조정하고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했다. 또 지하주차장에 비상벨을, 산책로에 보안등을 배치해 주야간 안전한 아파트로 구성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공급된 '송내역 파인 푸르지오'는 모든 세대 현관에 카메라가 설치된다. 현관 앞 일정 거리 이내로 누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돼 주거 침입을 막는다. 외출기능을 설정하면 무단침입 시 관리실과 경비실로 자동 통보되는 현관 감지기도 도입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에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녹화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매니저 홈오토메이션시스템(HAS)이 적용된다. 각 세대 내 침입자가 발생하는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거실조명 점등 및 영상이 녹화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최저

단기 공급과잉에 따른 여파로 서울에서 오피스텔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8.05%로 국민은행이 2010년 7월 오피스텔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가격에 12를 곱해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한 값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을 의미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오피스텔 주인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월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연말 기준) 10.08%, 2011년 9.31%, 2012년 9.06%, 지난해 8.61%로 매년 꾸준히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1월 8.57%, 3월 8.47%, 5월 8.36%, 7월 8.19%, 9월 8.09%, 10월 8.06%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단기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볼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수요가 분산돼 전월세 전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대수익률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연말 기준) 5.94%였던 임대수익률은 5.70%(2011년)→5.63%(2012년)→5.62%(2013년)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0.01~0.02%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호반건설,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 호반건설 사내 봉사단인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주말 서울 금천구 소재 혜명보육원을 찾아 절인배추를 옮기고 김치를 담그는 등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호반건설 제공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들어설 마리나시설 부산항만공사(BPA)는 마리나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싱가포르 마리나회사 SUTL사와 사업조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마리나시설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수도권 주택 월세가격, 20개월 연속 하락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2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1월 8개 시·도의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이 0.2%, 지방광역시가 0.1% 뒷걸음질쳤다.

전국 월세가격은 17개월 동안 떨어지다 지난 9월 보합세로 전환됐지만 10월 이후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서울(-0.2%), 인천·경기(-0.1%)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 현상으로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0.1~0.3%씩 월세가격이 하향조정되고 있다.

지방은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울산은 혁신도시 내 신규 인구 유입과 대기업 근로자들의 꾸준한 수요로 0.1% 상승했다. 광주는 공급과 함께 수요도 증가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전·대구(-0.1%)와 부산(-0.2%)은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월세가격이 빠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0.2%), 연립·다세대(-0.2%), 아파트(-0.1%), 단독(-0.1%) 순으로 하락했다. 다만 지방에서는 오피스텔(0.0%)보다 아파트(-0.2%)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박선옥기자

온라인마켓, 연말행사 봇물

기획전 풍성…할인·쿠폰 증정 등 공세

온라인 유통업계가 연말 대목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는 블랙프라이데이로 살아난 소비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발 빠르게 행사에 들어갔다.

장난감·게임기 등 아이들을 겨냥한 상품 특가 판매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용품 행사 등 다양한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G마켓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지난해 보다 2주 가량 앞당겼다. 오는 14일까지 'X-MAS 슈퍼 혜택'(사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매일 3가지의 크리스마스 인기 상품을 선정해 최대 61%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 1일에는 '또봇 놀이펜'을 반값 수준인 3만9800원에, 2일에는 '퓨쳐카디럭스 세트'를 41% 할인율된 3만9800원에 선보인다. 일별 할인 상품 외에도 장난감·트리·카드·파티소품 등을 프로모션 기간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 앱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1만 명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타가 카드 보내는 장난감 선물' 행사를 14일까지 열고 매일 오전 10시 '한정수량 장난감 특가 찬스' 코너를 통해 인기 장난감을 최대 70% 할인한다.

롯데닷컴은 MD가 선정한 인기 유아동 크리스마스 상품을 소개한다. '크리스마스 Gift 쇼'에서는 '스텝2 리틀쉐프키친 주방놀이' '겨울왕국 Let it go 노래하는 엘사' '영실업 또봇 델타트론' 등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은 5일부터 25일까지다.

옥션은 10일까지 '12월엔 옥션이 산타클로스' 행사를 연다. 해당 상품은 ▲PS4 ▲XBOX 360 ▲XBOX ONE ▲닌텐도 3DS XL ▲닌텐도 Wii 등 총 5개 상품을 총 400대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또 11일까지는 '캐논 Sorry Santa 페스티벌'을 펼친다. 캐논 공식 판매자 상품에 한해 적용 가능한 중복 쿠폰을 증정한다.

연말 선물 수요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불황이기 때문에 할인율 적용은 물론이고 쿠폰까지 얹어주고 있다.

티몬은 몬스터세일을 12월 한 달 내내 진행한다. 최대 20% 할인해주는 카트 할인과 추천 상품을 지인이 구매할 경우 구매 가격의 5%를 적립해주는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몬스터 슈퍼픽'도 이번 달 말까지 연다.

11번가는 한해 동안 인기를 끌었던 상품을 모아 '2014 쇼핑어워즈'를 31일까지 개최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당일 배송 '제주산 갈치' 신세계백화점은 1일부터 본점 지하 1층 신세계 푸드마켓 선어코너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타고 온 싱싱한 갈치를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제주 인근해에서 잡은 갈치로 비늘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낚시바늘로 잡아 은빛깔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는 제주도 항구에서 갈치 경매를 통해 가장 싱싱한 갈치만 엄선해 즉시 항공으로 직송, 백화점 식품관에서 신선도가 최고인 제주산 갈치를 맛 볼 수 있게 했다. 가격은 특대(500g) 1미 2만5000원

/신세계백화점 제공

수입 맥주 판매↑, 소주↓

대형 마트, 연말엔 격차 심화될 듯

대형마트에서 올해 하반기 맥주류의 판매는 상반기보다 다소 늘어난 반면 소주류의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 중 수입 맥주가 소주 매출을 넘어섰다.

이마트 매장에서 고객들이 수입맥주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업체에서 수입 맥주 매출은 288억원, 소주는 28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하반기 매출 신장률도 수입 맥주가 8.5% 신장을 기록해 소주 신장률인 2.8%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국산 맥주의 경우 매출 규모는 30.7%(532억원)로 가장 높지만, 올해 하반기 매출 신장률은 상반기(547억원)에 비해 -4.9%를 기록해 지난해(662억원·31.1%)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마트 측은 연말은 수입맥주 판매량은 더욱 증가하는 시기로 소주와 수입맥주의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류 중 매출 비중으로도 지난 2012년 하반기 11.7%였던 수입 맥주는 올해 16.6%로 5%가량 비중이 늘어났으며, 소주는 1.7% 늘어난 16.2%, 국산 맥주는 3% 가까이 감소한 30.7%를 기록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맥주 인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맥주의 맛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수입 맥주를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이마트는 지난 2011년부터 200여 종의 수입 맥주를 갖춘 별도 코너를 주류 매장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업계 최초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크래프트 비어(수제 맥주) 존'을 신설해 수입 맥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지난 10월 이마트 15개 점에서 이마트 단독으로 선보인 '씨에라 네바다 페일 에일' '도그피쉬 헤드 90 미닛츠 IPA' '파이어스톤 더블 배럴 에일' 등 '크래프트 비어'의 경우 오픈 한 달 만에 1만 병이 넘게 팔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정영일기자 prms@

올 유통 키워드는 'S·A·V·E'

롯데마트는 1일, 2014년 한해 동안의 이슈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구하다'라는 뜻의 'SAVE'를 올 한해 유통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SAVE'란 올 한해 유통가 이슈를 가져온 단어들을 조합한 것이다. ▲'소비 심리 회복 위한 유통업체의 할인 행사(Sale)' ▲'모바일, 요우커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 국내 시장 적용(Adaptation)' ▲'직구·병행수입·FTA 등 소비 패턴 변화(Various purchase)'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한 이상 기온(Early Season)' 등이 꼽혔다.

먼저 올 한 해는 연중 세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 유통업체에서는 어려운 유통환경 속에서도 대규모 할인행사를 연이어 진행해 경기 회복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징검다리 연휴와 월드컵·아시안게임이 있었지만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결국 각 유통업체는 연말에나 선보이던 결산 행사들을 6개월이나 앞당겨 벌였다.

최근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오프라인에서 쇼핑이 어려운 고객들이 늘어나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폰 사용자 수가 급증하며, 모바일폼 시장 매출은 올해 12조원 대를 돌파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늘면서 유통업체들은 전용 마케팅을 선보이는 등 '요우커 특수'라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인 전용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자, 과거 폐쇄적이었던 국내 유통시장에 병행수입이 확대되고 해외 직구족이 늘어났다.

유통업체들은 '직구 편집숍'을 운영하고, '병행수입'으로 저렴한 상품을 선보이고, 직구보다 높은 할인율로 연말 대형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린 고객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콜롬비아·캐나다·뉴질랜드·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총 47개국에 이르는 경제 영토를 확보하면서 유통업체도 관세 철폐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다양한 국가의 상품을 저렴하게 소싱 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지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따뜻한 겨울로 채소 작황은 풍년이었다. 하지만 수요가 부진해 채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로 채소 농가들은 올 한해 매출 하락과 재고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벤트

전 매장, 와인 1+1 기프트 행사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4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우리나라 농악이 17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오는 3일까지 전 매장에서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면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같은 기간 인기품목인 영양간식 칠칠한우떡갈비(1.08kg·3만8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1.08kg·1만9600원), 통등심돈가스(2.16kg·2만3800원), 모짜렐라돈가스(2.16kg·2만8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온라인쇼핑몰(www.sullaim 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이달 21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또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3일까지 매장(청담·홍대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 국내산 갯벌천일염(3kg)을 무료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헤비·캐주얼·신소재… 올겨울 다운 트렌드

두툼한 재킷 각광… 합리적인 가격대 코트 스타일도 인기

올겨울 다운재킷 경쟁이 뜨겁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물론 스포츠, SPA 브랜드까지 차별화된 소재와 기능, 디자인을 선보이며 소비자를 유혹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설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얇고 가벼운 경량급의 점퍼보다는 두툼한 헤비 다운재킷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헤비 재킷은 다운점퍼 시장의 전통 강자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주도하고 있다. 보온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다.

블랙야크는 올해 중간급 두께의 '미들 다운' 생산을 지난해보다 20% 줄인 대신 헤비 다운을 10% 늘리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B5X M5' 재킷은 중량감 있는 구스 다운(거위털) 제품으로 보온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기를 집어넣는 기법으로 겉보기엔 무거워 보이면서도 무게를 조금 줄인 것이 특징이다.

몽벨 역시 주력 제품으로 헤비 다운을 내세웠다. 바람을 막아주는 윈드스토퍼 기능에 주목해 구스 충전재 투입을 늘린 '아이스버그'와 '게일' 모델을 새로 내놨다.

캐주얼 브랜드보다 일상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내놓았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젊은층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베이직하우스의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리그는 최근 아웃도어 다운재킷을 겨냥해 '유럽피언 다운점퍼'를 19만9000원에 출시했다. 베이직한 디자인과 소재에 오리털을 충전재로 사용해 코트의 멋스러움과 다운재킷의 보온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겨울 점퍼의 충전재로 많이 쓰이는 오리털·거위털은 따뜻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솜은 복원력이 떨어져 오래 입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 브랜드는 자체 개발 소재로 실용성을 강조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얇고 가벼우면서도 땀과 물에 강해 물세탁이 가능한 보온 충전재 VX(Vertical Excellence)를 선보였다. 방풍·보온은 물론 흡습·투습 기능을 갖춘 소재로 추위에도 소재 고유의 보온성과 복원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파타고니아가 선보인 '나노에어 재킷'은 합성섬유 충전재인 풀레인지를 활용한 겨울 점퍼다. 따뜻하면서도 투습·신축성이 뛰어나 겨울철 야외활동 시 적합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제공

"여성만을 위한 쉼터로"

특급호텔 다양한 패키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급호텔들이 연말 파티와 송년 모임을 계획하는 여성들을 위한 패키지를 준비했다. 올해 가장 즐거운 하루를 호텔에서 보내보자.

먼저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은 '레이디스 블링블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여자 3명을 위한 패키지로 스위트 객실 1박과 조식 3인이 포함돼 있으며 바바라이즈의 화이트닝 마스크시트 3매와 달콤한 산테로 안젤리 로쏘 레드 와인이 선물로 증정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는 '윈터 스파' 패키지가 있다. 남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객실과 수영장, 체육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내 더 스파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겨울 한정 트리트먼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추운 겨울 움츠러든 근육을 풀어주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윈터 레스트' 패키지를 마련했다. 스파 오셀라스의 30분 발 마사지 또는 25분 솔리움 마사지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천연 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인 트리앤씨 제품으로 구성된 뷰티박스가 제공된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복합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여성을 위해 '엔조이 타임스퀘어' 패키지를 준비했다. 객실 1박과 CGV 영화 관람권, 타임스퀘어 몰 내 매장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롯데호텔서울은 '레이디스 셀레브레이션' 패키지를 통해 멋진 추억을 선사한다. 2인과 3인 등 인원에 따라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클럽 라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리츠칼튼 서울의 '윈터 풀 메모리' 패키지 역시 여자들만의 파티를 만끽할 수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의 '레이디즈' 패키지는 룸 타입에 따라 최대 6명까지 투숙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품격있는 '문화송년회' 어때요~

한국의 집 '전통의 멋과 함께하는 이벤트' 선봬

전통문화복합체험공간 '한국의 집(관장 김가삼)'이 오는 31일까지 특별한 송년회 모임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전통의 멋과 함께하는 문화송년회' 상품을 내놨다.

행사는 기존의 송년회가 갖고 있는 식상함을 벗어나기 위해 송년회의 개념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콘셉트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가족이나 친구·회사 동료들과 2014년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식 뷔페와 함께 신명나는 전통예술 공연을 제공한다. 특히 뷔페는 약 50가지의 메뉴로 구성되며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소속의 무용수들이 태평성대와 설화무·북과풍물놀이 등의 공연을 펼친다.

또 문화송년회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식 뷔페와 전통예술 공연이 준비되는 송년회는 6만원, 한식 뷔페와 전통현악 합주는 4만5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탄산음료는 무제한 제공되며 기타 음·주류는 30% 할인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있다.

한국의 집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한국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한국의 집 송년회를 통해 2014년을 뜻 깊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5년에도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2266-9101~3 /황재용기자

겨울철 '피부 보약'은 프로폴리스

앰플·에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

건조와 당김, 홍조 등 겨울철 피부가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트러블로 악화될 수 있다. 체력이 떨어지면 보양식을 먹듯 피부 컨디션이 나빠질 때는 고농축 영양성분이 든 제품으로 집중 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화장품 업체들이 '프로폴리스'의 영양 성분에 주목, 앰플·에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수액과 꽃가루를 자신의 침 속에 있는 효소와 섞어 만드는 혼합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귀한 원료다.

스킨푸드가 선보인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정제수 대신 블랙비 프로폴리스·로열젤리 추출물 등을 사용해 일명 '꿀물 에센스'로 불린다.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며 피부 보호와 윤기·보습까지 챙길 수 있어 요즘같이 건조함과 푸석함을 느끼는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다.

CNP차앤박화장품의 'CN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은 프로폴리스에서 추출한 CAPE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습뿐 아니라 피부에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전달한다. 히알루론산 등 강력한 보습 성분들도 들어있어 촉촉한 피부 커디션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꿀광채 앰플'로 알려진 퓨어힐스의 '프로폴리스 90 앰플'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이 90%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인증으로 잡티와 잔주름을 한번에 케어할 수 있으며 미국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유효 성분의 엑기스만 담은 앰플은 단기간 사용으로도 피부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준다. 앰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깨끗한 클렌징은 기본이며 토너를 이용해 피부결을 정돈한 뒤 바르면 더욱 효과적이다. 토너 전 단계에 스팀 타올을 3분정도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지원기자

HNT 하나허니문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honeymoon

허니문 주말상담회

예비신랑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던킨 도너츠 / 공평 갤러리 / 하나투어 본사 2층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삼성생명 /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 피자헛 / 종각역

일시 2014년 12월 20일(토요일) 오후2시~5시

장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마일리지 **40만 마일리지** 제공 (커플 당) ※일부상품 제외

event 02 현장 예약시 **전기포트&영화예매권 2매** 증정

푸껫 6일

♥ 리조트 2박+르네상스 풀빌라 ♥

1,701,800부터 (⊕포함)/선택경비:있음

▶2015년 1월 10일~6월 30일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푸껫(4)
- 500바트 축의금 현지전달
- 피피섬(섬일주&스노클링), 사파리투어, 파통 나이트투어
- 스파(오일 마사지+타이 마사지 2시간) 포함
- 허브 사우나&발마사지 포함
- 아프로디테쇼(VIP석) 포함

커플당 50만원 할인

하와이 6일/7일

♥ 오아후-쉐라톤PK ♥

2,479,100부터 (⊕포함)/선택경비:있음

▶2015년 1월 4일~6월 30일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오하우(4/5)-기내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 요금으로 동반자 무료 혜택
- 쉐라톤PK 타워파샬오션뷰→타워하이오션뷰 무료 룸 업그레이드
- 와이켈레 프리미엄 아울렛 포함

코사무이 6일

♥ 오조차웽+반얀트리 힐크레스트 풀빌라 ♥

2,602,600부터 (⊕포함)/선택경비:있음

▶2015년 3월 1일~6월 30일까지 매주 일,월요일 출발

- 방콕-사무이(4)-방콕-기내
- 500바트 축의금 현지전달
- 선택투어 프로그램 체험 2회 포함(7가지 중 택일)
- 사무이의 화려한 밤거리를 즐길 수 있는 차웽 디스커버리투어
- 로얄제리&콜라겐 페이셜마사지 체험(120분)
- 발마사지 또는 전통안마 체험 60분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7일

♥ 호텔 얼리체크인 ♥

2,653,800부터 (⊕포함)/선택경비:있음

▶2015년 6월까지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시드니(1)-골드코스트(2/3)-시드니(0/1)
- 장시간의 비행 피로에 지친 몸을 쉬기 위한 호텔 얼리체크인
- 골드코스트 헬기투어, 초호화 요트 크루즈 포함
- 시드니 동부지역 관광
- 골드코스트 5성급 호텔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2127-1234

HNT 하나투어

중년 남성의 적, 전립선비대증

겨울철 악화 주의…전문의 치료 받아야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하는 고민 중 하나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이맘때가 되면 질환이 악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전립선이란 남자의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생식기관으로 전립선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그 사이로 요도가 지나간다.

이런 전립선이 덩어리를 형성해 비대해지면서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비대증이다.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노화 때문이며 국내 50대 남성의 50%, 70대는 70%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년 남성 중 평균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잔뇨감, 야간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다. 소변을 볼 때 소변 줄기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가늘어지는 것도 증상 중 하나다.

이 질환은 날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의 교감신경이 방광의 수축을 억제한다. 또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적고 소변량이 많아짐에 따라 방광이 과민해져 날씨가 따뜻할 때에 비해 전립선비대증에 쉽게 걸리고 증상이 악화된다.

전립선비대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신장에 손상이 가거나 성 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은 뒤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약물치료가 진행되며 증상이 심하다면 최소 침습적 레이저 수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법 등이 고려된다.

/황재용기자

겨울철 관절 건강 비상!

기온 떨어지면 통증 심해져… 지속적인 자가 진단 필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관절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 월동준비와 함께 자신의 관절 건강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절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로 나이가 들거나 움직임이 많으면 점차 소모되면서 노화가 진행된다. 또 손상 시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거동은 물론 심리적인 위축이 찾아온다.

게다가 치료가 늦어질수록 관절 손상이 심각해지며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심해지고 상태가 악화된다. 이에 특정 자세나 동작 중 느껴지는 통증, 신체의 변화를 통해 관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생활의 영향으로 무릎 연골 손상이 많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경우 ▲무릎관절 주위를 자주 만지고 일어날 때 주위 사물을 의지하는 경우 ▲무릎이 자주 붓는 경우 등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는 것이 힘들다면 고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고관절 질환은 허리 디스크와 혼동할 수 있지만 ▲양반다리를 했을 때 허벅지 안쪽의 통증이 심한 경우 ▲걸을 때 자주 뒤뚱거리게 되는 경우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는 고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음주 후 고관절 주위에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일 수 있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어깨나 손목, 목 등에서의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

김태윤 웰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겨울에는 통증이 심해지고 부상 등의 원인으로 관절이 손상될 수 있어 자가 검진을 통해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심각한 손상이 있다면 인공관절 수술 등을 받게 되는데 한 번의 수술로 15~20년 정도 인공관절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병원의 이름이나 규모보다는 숙련된 의료진과 전문성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여성들 효과 빠른 감기약 선호

국내 여성들은 빠른 시간 안에 감기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국내 20~4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감기 질환과 치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83.5%)이 '5분 이내에 빠른 효과가 있는 감기약이 있다면 복용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6.4%)은 감기약을 구매할 때 '빠르게 나타나는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꼽았다.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감기에 걸리면 최대한 빨리 감기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높은 셈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전문의약품 처방 또는 주사 접종과 같은 병원 치료(37%)나 일반의약품 복용(34%) 등의 의학적인 치료법을 대체로 선호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은 한 해 평균 3~5회(44%) 정도 감기에 걸리며 10명 중 9명(91.1%)은 한 번 감기에 걸렸을 때 최소 3일 이상 감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재용기자

결혼 전 건강체크 꼭 하세요

연령대 높아져 2세 계획 등 신경써야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지만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결혼 전 예비 부부들의 건강이 중요해졌다. 결혼 전 필요한 건강관리를 소개한다.

우선 건강한 2세를 위한 검진이 필요하다. 예비 신부들은 골반 초음파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풍진과 간염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예비 부부가 함께 계획 임신에 대비한 피임법 등을 점검하고 남성은 만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피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커플들은 적어도 결혼식 두 달 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기미나 주근깨는 물론 여드름 흉터 등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며 보톡스나 스케일링 등 가벼운 시술을 받을 수도 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무리한 치료보다는 가볍게 수분관리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불편함으로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고려한다면 결혼 일정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회복기간을 체크하고 본인의 눈에 맞는 수술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비 부부의 경우는 결혼 3주에서 한 달 전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정적이며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DNA 검사 등 정밀 검사 뒤 진행하는 원데이 라식도 가능하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웨딩 촬영 등 시간이 없는 예비 부부들은 결혼 준비 때부터 건강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며 "안과의 경우 원데이 라식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시력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건보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서울대 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공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성상철(65·사진) 전 서울대병원장을 임명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 10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 이사장은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반전의 꽃미남, 신예 정해인

어려 보이지만 88년생 용띠
20대 가기 전 청춘 역 하고싶어

꽃미남 이미지?
알고보면 태권도 유단자

tvN '삼총사'로 첫 주연 꿰차다

tvN 드라마 '삼총사'는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였다. 국내 최초 계획된 시즌 드라마였으며 tvN 인기드라마 '인현왕후의 남자'와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 송재정 작가와 김병수 PD가 함께 만든 세 번째 작품이었다. 기대작이었던 만큼 주연배우 캐스팅 또한 화려했다. '나인'의 주역 이진욱과 데뷔 후 사극에 처음 도전하는 양동근, 신(新) 한류스타로 떠오른 정용화까지. 그 사이에 작고 흰 얼굴의 앳된 청년이 있었다. 바로 신예 정해인(26)이다.

◆ 꽃미남이시네요

그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드라마 '백년의 신부'로 데뷔했다. 주인공 최강주(이홍기 분)의 동생 최강인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단단히 찍었다. 극중 캐릭터는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아이돌 가수였다.

첫 주연작 '삼총사'에서 그가 연기한 안민서도 여자보다 아름다운 외모로 눈길을 잡아끄는 '꽃무사' 캐릭터였다. 예쁘장한 소년의 느낌이 강한 이미지는 배우로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은 무엇일까.

"제 얼굴은 좀 흐릿하게 생긴 것 같아요. 배우는 자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모습을 모두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카메라 앞에서 100%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연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장점을 모르면 안 되겠죠? 사실 눈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귀도 마음에 들고요. 아쉬운 점은 키요. 요즘 남자 배우들은 키가 다 훤칠하더라고요."

그는 내년이면 20대 후반에 접어든다. '백년의 신부'에서 형으로 나온 이홍기는 실제로 정해인보다 두 살 아래다.

"다들 절 보고 동안이라고 하시는데 데뷔를 늦게 한 입장에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올해 스물일곱 살이라 20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대가 끝나기 전에 청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교복입고 연기하는 10대 캐릭터도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어요. 입시에 찌든 현실적인 고등학생 역할 같은 거요."

◆ 선배들 틈바구니에서

'삼총사'는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과 소현세자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그가 연기한 안민서는 원작 소설 아르미스 역에 해당된다. 즉 삼총사로서 이진욱·양동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이다.

"'삼총사'가 제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대작에 선배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신기했죠. 그 다음에는 기에 눌렸고요(웃음). 워낙 연기를 잘하는 선배들이니까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떡해야하나'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중에는 친해져서 같이 즐기면서 촬영했어요."

하지만 '삼총사'의 첫 번째 시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형편없는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다. 주 1회 방송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은 오히려 극의 흐름을 끊어지게 해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1회 방송이라고 해도 연기자나 스태프들이 더 여유있지는 않아요. 밤샘촬영하고 힘든 건 똑같았어요. 시청률이 생각만큼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무척 좋았어요. 이진욱 선배도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총사' 촬영 기간이 총 넉 달이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습니다. 그새 정이 들었는지 벌써 보고 싶어요. 물론 시즌2 때 다시 만나기는 하지만요."

◆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삼총사'를 위해 그를 비롯한 배우들은 승마부터 검술을 익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고 밝혔다. 배우들이 처음 만난 곳도 승마장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액션신에는 부상이 뒤따른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고 타박상 정도에서 끝났어요. 평소 운동을 즐기는 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실은 제가 태권도 3단이에요. 어릴 때 시작해서 10년 정도 했어요. 초등학생 때 친구랑 싸우면 항상 지는 거예요. 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루는 엄청 얻어터지고 와서 울면서 엄마를 졸랐어요. 태권도 학원에 보내달라고요(웃음). 악에 받쳐서 시작했는데 10년이나 했네요. 태권도 선수를 꿈꾸던 때도 있죠. 같이 태권도 하던 친구는 지금 사범이 됐고 저는 연기자가 됐어요."

태권도를 하는 꽃미남. 그런 의외의 매력은 정해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제 눈이 선하게 느껴진다는 분도 계시지만 무섭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존경하는 배우가 박해일 선배님인데 그 분의 눈빛이 묘하잖아요. 그런 면을 배우고 싶어요. 개구쟁이 역할도 가능하고 섬뜩한 캐릭터도 가능한 그런 배우요."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국가대표 록밴드, 소울 음악 대부와 만나다

YB·바비 킴 연말 합동 콘서트 '동시상영' 개최
각 팀 개별 무대·색다른 조합의 '매시업' 예고

록과 소울이 한 무대에서 만나면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국가대표' 록 밴드 YB와 '소울 음악의 대부' 바비 킴이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합동 콘서트 '동시상영'을 개최한다.

두 팀은 이미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YB의 보컬 윤도현은 바비 킴이 소속된 그룹 부가킹즈의 '여행길'에, 바비 킴은 윤도현의 솔로앨범 수록곡 '종이연'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두 목소리의 만남은 팬들에게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 두 팀은 단순히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YB와 바비 킴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브이홀에서 '동시상영' 쇼케이스를 열고 공연 맛보기 무대를 선보였다.

첫 무대는 바비 킴의 '렛 미 세이 굿바이'와 YB의 '드리머' 영어 버전이 절묘하게 섞인 곡이었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 위에 윤도현과 바비 킴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눈 내리는 날씨와 잘 어울렸던 감성적인 무대가 끝나자 두 팀은 바비 킴의 '한 잔 더'와 YB의 '타잔'이 만난 신나는 곡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두 번째 무대는 마치 원래 하나의 노래처럼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V-HALL에서 열린 'YB+바비킴 콘서트:동시상영' 쇼케이스에 참석한 밴드 YB와 바비킴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극과 극의 맛보기 공연이 끝난 뒤 윤도현은 "두 팀이 할 수 있는 무대에 '한 잔 더'와 '타잔'이 가장 신나고 록앤롤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매시업(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부른 노래는 서로 자신 있어 한 곡들이다. 예전에 '러브레터'를 진행할 때 '렛 미세이 굿바이'를 같이 부른 적이 있는데 '윤도현이 더 낫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드리머'는 바비 킴이 잘 모르는 노래라서 선택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바비 킴은 "'드리머'는 곡도 훌륭하고 보컬도 좋다. 처음 들은 이후로 매일같이 듣고 있다. 내가 부르는 게 실례처럼 느껴진다"고 겸손한 대답을 해 윤도현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날 두 팀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격태격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두 팀의 만남은 2011년 MBC '나는 가수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비 킴은 "같이 방송을 하며 YB라는 밴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YB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한 적도 있고 관객으로 찾아간 적도 있다. 방송에서 협연한 적은 있지만 콘서트는 처음이다. 이렇게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윤도현은 "바비 킴은 소울·블루스 장르의 기본기가 탄탄한 아티스트"라며 "이번 연말 공연에 찾아오는 관객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도현과 바비 킴은 각 장르에서 손꼽히는 보컬리스트다. 가수로서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욕심이 날 법도 하다. 특히 두 번째 '한 잔 더+타잔' 무대의 하이라이트 고음 부분은 바비 킴의 몫이었다. 바비 킴은 "누가 어느 부분을 부르자고 결정한 게 아니라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눠졌다"며 "함께 부를 노래를 선택할 때 (윤)도현이 형의 색깔을 생각하며 골랐다"고 말했다. 이에 윤도현 역시 "워낙 친하다보니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려 했다"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캐롤송 대결과 각자 개별 무대, 협연 무대도 있다. 공연이 막바지에 접어들면 아마 한 팀처럼 보일 것"이라며 "YB의 신곡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연관계자는 "타이틀 '동시상영'은 두 팀의 공연을 한 무대에서 본다는 의미와 서로의 음악으로 가득 찬 겨울(冬詩相盈)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5일 신곡을 발표하는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가운데). /아메바컬쳐

다이나믹 듀오·박정현 신곡 발표

연말 합동공연을 앞두고 있는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이 오는 5일 신곡을 발표한다.

1일 다이나믹 듀오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은 "이번에 공개되는 깜짝 신곡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개개인의 다양한 감정을 담은 곡"이라며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환상적인 하모니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의 신곡 작업은 지난달 28일 다이나믹 듀오 멤버 개코의 SNS를 통해 예고됐다. 개코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유희열에 이어 박정현과의 '감금' 인증샷을 공개해 신곡 작업 중인 사실을 밝혔다.

한편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합동공연 '2014 다이나믹 듀오+박정현 콘서트-그 해, 겨울'을 개최한다.

/장병호기자

장근석 日 열도 뜨겁게 달궜다

4개 도시 돌며 8회 공연 7만2000여명 동원

배우 장근석(사진 왼쪽)이 '2014 팀에이치 파티 투어-레이닝 온 더 댄스 플로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월1일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된 이번 투어는 후쿠오카·사이타마를 거쳐 지난달 26~27일 이틀 동안 오사카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4개 도시 8회 공연에 총 7만2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장근석과 그의 음악 파트너인 빅브라더의 프로젝트 그룹 '팀에이치'는 5년여 동안 국내외를 넘나드는 꾸준한 공연으로 매회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파티 투어에서는 일본 내에서 여전히 식지 않은 한류 스타로서 장근석의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장근석은 이번 파티를 직접 기획했다. 중앙 무대를 전면 노출로 만들고 특수효과, 무대연출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섬세함을 발휘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을 대형 클럽과 같은 파티장으로 만들어 팬과의 호흡을 최대치로 이끌어냈다.

공연을 마친 뒤 장근석은 "무대에서만큼은 나부터 200% 즐길 수 있어야 팬들과의 교감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 같다. 팬들에게도 단순히 관람하는 공연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무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했던 시간들이 뿌듯함으로 돌아왔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아직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많다. 늘 발전된 모습으로성장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더 좋은 무대를 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어를 지켜본 많은 관계자들은 "장근석은 여전히 독보적인 한류스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늘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며 "그의 노력과 열정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유쾌한 복수극 '전설의 마녀'

막장과 '한 끗' 거리두기… 시청률 기록 경신 "기대된다" 호평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마녀의 복수가 기대된다."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가 시청자를 안달 나게 하고 있다. 작품은 방송 12회 만에 시청률 23%(닐슨코리아·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 상승세다.

'전설의 마녀'는 막장 드라마 코드를 다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탄탄한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막장과 '한끗' 거리를 두며 호평 받고 있다.

재벌 기업 신화 그룹의 며느리가 된 고아 출신 여주인공은 남편과 사별하고 주가 조작 누명을 쓴 채 구속된다. 그녀는 교도소 10번 방에서 세 명의 동료를 만나고 이들은 출소 후 제빵 기술로 성공을 거둔다. 특히 네 여인은 신화 그룹과 악연으로 묶여 있다. 탐욕스러운 재벌을 상대로 한 네 여인의 성공과 복수가 '전설의 마녀'의 핵심 줄거리다. 전형적인 막장 요소를 갖췄지만 작품은 교도소 출신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오해를 극복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개연성 있게 담아 시청자가 자연스레 응원하게 한다.

비운의 재벌가 며느리 문수인(한지혜)·억울한 사연이 있는 30년 복역수 심복녀(고두심)·예쁜 사기꾼 손풍금(오현경)·재벌과 엮여 살인자 미혼모 오명을 쓰게 된 서미오(하연수), 이들 네 여인의 이야기는 약자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조명하며 몰입도를 높인다.

로맨스도 극의 재미를 더한다. 문수인은 교도소 제빵 선생님 남우석(하석진)과 실수로 입을 맞춘 뒤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와 사별한 경험이 있어 향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서미오와 신화 그룹 차남 마도진(도상우)의 사랑은 험난하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커플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손풍금과 신화 그룹 사모님 운전 기사 탁월한(이종원)은 유쾌함을 담당한다. 고시원 방 이웃이지만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유학파와 재벌로 둔갑한 이들의 코믹 연기가 웃음을 자아낸다.

네 여인은 지난 12회를 기점으로 복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문수인과 심복녀가 제빵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교도소 밖 세상으로 진정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

'전설의 마녀'들이 편견과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 시원한 한 방을 날리고 피보다 진한 우정으로 주말 저녁 유쾌함을 선사할 수 있을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MBC 주말극 '전설의 마녀' 오현경·하연수·고두심·한지혜 (왼쪽부터)

하석진

한예리 다큐 내레이션 참여

EBS '다큐프라임'… 가족 이야기에 눈물도

배우 한예리(사진)가 EBS 다큐멘터리 시리즈 '다큐프라임'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한예리는 '다큐프라임'의 '가족쇼크' 시리즈 중 '청춘, 고독사를 말하다'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2013년 전국 구청홈페이지에 올라온 206개의 무연고사망자 공고문에 관심을 갖게 된 67명의 대학생이 이들의 삶을 취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한예리는 '다큐프라임'의 애청자로 이번 '가족쇼크' 시리즈 역시 1회부터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이번 내레이션 제안도 단번에 수락했다.

내레이션 녹음 과정에서 한예리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 녹음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녹음을 마친 뒤 한예리는 "잊고 있었던 사람들을 챙겨야겠다"며 "가장 의지하기에 가장 상처 주는 존재, 그렇기에 가장 힘든 존재 또한 가족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출을 맡은 김훈석 PD는 "프로그램 취지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사전 준비부터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배우 한예리의 열정에 놀랐다"며 "개성 있는 목소리가 프로그램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평했다.

한예리가 내레이션에 참여한 EBS '다큐프라임'의 '청춘, 고독사를 말하다' 편은 2일 밤 9시50분에 방송된다.

/장병호기자

성준 최면 전문의 변신

현빈·한지민 주연 '하이드 지킬, 나' 출연

배우 성준(사진)이 현빈·한지민이 출연하는 SBS 새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출연을 확정했다.

성준은 작품에서 최면 전문의 윤태주 역을 맡았다. 출중한 외모에 유머러스한 성격까지 갖춘 완벽한 캐릭터다. 기존 드라마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최면 전문의라는 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성준은 지난 10월 종영된 KBS2 드라마 '연애의 발견'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연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개월 만에 차기작을 정한 그가 '하이드 지킬, 나'를 통해 어떤 연기를 보여줄 지 기대가 모아진다.

'하이드 지킬, 나'는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여자의 삼각 로맨스를 다룬 로맨틱코미디다. 드라마 '49일' '야왕' '잘 키운 딸 하나'를 연출한 조영광 감독, '청담동 앨리스' 김지운 작가, '선덕여왕'·'뿌리깊은 나무'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함께 했다. 작품은 내년 1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장희진, 송승헌·김민정과 한솥밥

배우 장희진이 더좋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장희진은 영화 '영화는 영화다' '혈투', 드라마 '내 딸 서영이'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등에 출연하며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는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여자 다미 역을 맡아 존재감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영화 '도희야'와 '좋은 친구들'에 출연했으며 KBS2 단막극 '세 여자 가출 소동'으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좋은이엔티 측은 "장희진은 연기자로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된다"며 "배우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희진의 새 소속사인 더좋은이엔티에는 송승헌·채정안·김민정·구재이·현승민 등이 소속돼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감기 기운이 계속될 때 좋은 한방차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마음이 먼저 들뜨는 12월이다. 이미 송년회나 망년회 약속으로 벌써부터 일정이 빡빡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칫 무리하기 쉬운 때인 데다가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합쳐지면 여기저기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푹 쉬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냉기에 노출되다 보니 몸 관리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몸 상태가 나빠지면 평소 약했던 부위가 말썽을 부리기 마련이다. 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불량이 생긴다거나, 폐가 약한 사람은 기침이 계속 나기도 하고, 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가 잦아지기도 한다. 감기가 나아가는 시점일수록 약한 장기를 보(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면역력이 약화돼 감기기운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려도 땀이 잘 안 나고 기침가래가 많이 생기면 폐와 기관지가 약한 경우가 많다. 감기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 관리에 소홀해지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전하기 쉽다. 이런 사람들은 오미자를 진하게 우려내 마시면 좋다. 오미자는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 기침·편도선염·만성기관지염·인후염을 누그러트린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편이지만 한번 감기에 걸리고 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컨디션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평소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 때는 모과를 끓여먹으면 좋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과는 간에 작용해서 뼈와 힘줄을 보한다고 기록돼 있다. 말린 모과를 끓여마시거나 꿀에 재운 모과차를 이용해도 좋다.

평소 자주 체하고 몸이 찬 사람들은 감기가 나을 때쯤 설사나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말린 생강을 끓여 먹거나 뜨거운 물에 갈아놓은 생강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 마셔주면 좋다. 몸에 남아있는 냉기를 몰아내고 위장을 활성화 시켜준다.

특히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몸의 회복이 더뎌 감기를 달고 살게 된다. 자기 전에 생강과 대추를 씨째로 넣어 끓여마시자. 허약해진 기력을 북돋아줄 뿐더러 예민해진 신경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1	8	
						4		3
1			4					
			1	6		8		9
		9		8		6		
8		4		2	7			
					3			8
9		1						
	2	6			9			4

	5	9	3	4			2	
							7	6
				6	1			
5						4		
	6	8		3		7	5	
		4						1
			1	7				
8	9							
	2			8	5	3	4	

스도쿠 정답

5	4	3	7	9	6	1	8	2
6	9	8	2	5	1	4	7	3
1	7	2	4	3	8	9	6	5
7	3	5	1	6	4	8	2	9
2	1	9	3	8	5	6	4	7
8	6	4	9	2	7	3	5	1
4	5	7	6	1	3	2	9	8
9	8	1	5	4	2	7	3	6
3	2	6	8	7	9	5	1	4

6	5	9	3	4	7	1	2	8
4	1	3	2	9	8	5	7	6
2	8	7	5	6	1	9	3	4
5	7	2	8	1	6	4	9	3
1	6	8	9	3	4	7	5	2
9	3	4	7	5	2	8	6	1
3	4	6	1	7	9	2	8	5
8	9	5	4	2	3	6	1	7
7	2	1	6	8	5	3	4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실적 안 좋은 근무처 옮기고 싶은데… 현 부서 열심히 하면 본사진입 가능

Q 댕댕 남자 72년 8월 31일 양력 오후 1시10분 경

선생님의 가르침이 제가 올 한해를 헤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째, 올해 본사 진입은 실패했는데 내년에는 조금이나마 이동운이 있을까요? 둘째, 제가 원한다면 현재 부서에는 내년까지는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직속상사와의 불화와 이에 따른 부서의 업무실적 악화로 구설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부서에 계속 남는 것이 좋을까요? 셋째, 내년에 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후년에 다른 부서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나아갈 바람직한 처신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즐겁게 일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회사는 나에게 월급 주는 곳이고 나는 그냥 그만큼만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의미 없이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안 해도 얼굴표정이나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직장 생활은 규정보다도 예절로 이루어지는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의 인사이동이 귀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사나 주변의 평가와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동이나 승진의 운을 나타내는 관(官)운이 이제 서서히 생기를 얻는 시점에 와 있으며 당분간은 이동할 기회가 없으니 한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2017년 본사로 진입하는 것이 운기 상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에서나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 직장생활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자신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보다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귀하는 상관(傷官: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관을 침)의 기세가 여과 없이 표출되므로 자신의 능을 과신하고 구덕(口德:말의 덕)의 흠을 보이거나 타인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 마음에 들면 매우 잘 고 월등한 상대를 만나면 완전히 굴복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강하고 인색한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영리 하고 수단이 좋으며 언변과 재치가 뛰어난데 담력은 적은 편입니다. 다정이 병이되어 내 것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베풂에 대한 대가를 생각 말고 하며 비밀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2일 (음 10월 1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기다리던 소식 당도~. **60년생** 해묵은 고민은 해결된다. **72년생** 기회 왔을 때 확 달라진 모습 보여주라. **84년생** 성과보단 안전이 먼저다.

49년생 주도한 일은 성사된다. **61년생** 양보할 땐 먼저 선수를 처라. **73년생** 갈림길서 고민을 하는 형국이다. **85년생** 곧 정상이니 현재 난관 이겨내라.

50년생 마음을 비우니 편안~. **62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74년생** 자신의 결점을 정확히 진단해 보라. **86년생** 연인이 마음 열어 사랑은 깊어진다.

51년생 상상한대로 일이 풀린다. **63년생** 위험한 사람 다가오니 경계하라. **75년생** 실언하면 설 곳이 없어진다. **87년생** 상사의 지적에 토 달지 말라.

52년생 삶의 템포를 늦춰라. **64년생** 오늘만은 명성이 이름값 한다. **76년생** 직장인은 웃음의 그늘을 조심할 것. **88년생** 반짝 아이디어가 밥 먹여 준다.

53년생 외출하면 입과 눈이 즐겁다. **65년생** 보수적 생각을 유지할 것. **77년생** 공들인 일은 성사가 된다. **89년생** 변화의 기회가 오니 적극 활용할 것.

42년생 자신의 결점 잘 보라. **54년생** 물고기가 큰 강을 만난 격이다. **66년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지 말라. **78년생** 직장인은 찬밥신세를 면한다.

43년생 애로는 없지만 답답하다. **55년생** 고전은 하나 마음은 편안~. **67년생** 궁금한 일은 베일을 벗는다. **79년생** 마음먹은 일은 강력히 추진하라.

44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6년생** 불길한 그림자는 서서히 걷힌다. **68년생** 가만히 있는 사람 흔들지 말라. **80년생** 소문 믿으면 손해만 본다.

45년생 세상엔 공짜란 없다. **57년생** 자녀 눈치에 벙어리 냉가슴~. **69년생** 샌드위치 신세서 탈출한다. **81년생** 조직의 숨은 실세 누군지 잘 파악할 것.

46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라. **58년생** 욕심 부려서 벌인 일은 족쇄가 된다. **70년생** 배우자 믿고 기다려 보자. **82년생** 치밀한 계획이 웃음 선사한다.

47년생 애물단지가 보배로 바뀐다. **59년생** 돈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것. **71년생** 추진 중인 일은 탄력 붙는다. **83년생** 기회 왔을 때 존재이유 증명하라.

중·하위권 팀, 부상에 '시름'

삼성·KCC·인삼공사·LG… 하승진·오세근·김종규 등 '토종 빅맨'

시즌 중반 돌입을 앞둔 프로농구 정규리그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은 상위권 팀보다 중하위권 팀들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팀 당 약 20경기를 치르고 3라운드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몇몇 팀들은 주전 선수의 부상 공백으로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전주 KCC는 9연패 늪에 빠지며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한 채 리그 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선수인 하승진과 박경상이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10개 구단 중 10위인 서울 삼성도 기대가 컸던 신인 김준일이 페렴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키스 클랜턴은 발 부상으로 약 1개월 가까이 결장을 예고했다. 가드 박재현과 포워드 임동섭도 부상 중이다.

성적이 좋은 팀도 주력 선수들의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교롭게도 리그를 대표하는 '토종 빅맨'들이 나란히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KCC의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을 비롯해 리그 7위 안양KGC 인삼공사의 오세근도 지난달 28일 왼쪽 발목을 다쳤다. 오세근의 코트 복귀는 짧으면 2주, 길면 4~5주까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삼공사는 28일 서울 SK를 상대로 대패했지만 다행히 지난달 30일 부산 KT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리그 7위로 갈 길 바쁜 인삼공사는 오세근에 이어 포워드 양희종까지 부상이라 '비상시국'이다.

KCC 역시 센터 하승진을 비롯해 가드 박경상이 부상 중이라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태다.

창원 LG는 지난 시즌 신인왕 김종규가 11월 29일 KCC 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울산 모비스, 서울 SK 등과 함께 '3강'으로 지목된 LG는 시즌 초반 데이본 제퍼슨, 기승호 등의 부상 공백 탓에 7위(8승12패)에 밀려 있는 상황에서 김종규까지 다쳐 팀 전력에 큰 구멍이 생겼다.

안양 KGC 인삼공사 양희종 선수.

1위를 달리는 모비스도 주득점원인 문태영이 지난달 20일 SK와의 경기에서 왼쪽 발목을 다쳐 결장하고 있다. 모비스는 문태영 외에 이대성, 천대현 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지만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4위 고양 오리온스 역시 허일영, 김강선 등이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하기 어렵다.

선두권 진입이 절실한 6위 KT는 팀의 간판인 조성민이 무릎 부상으로 한 경기도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2군 리그인 D-리그에 출전하며 복귀 채비를 마쳤다. 서울 삼성은 가드 박재현이 이달 중 코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워드 임동섭은 내년 1월을 바라보고 있다.

리그 최하위권 두 팀의 이번 주 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전 선수들이 부상 늪에 빠진 가운데 9연패의 KCC가 2일 6연승의 인천 전자랜드와 맞선다. 최근 리그 최하위 삼성을 상대로 16연승을 기록 중인 1위 모비스는 5일 17연승에 도전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FA 거품과 빼앗긴 옮길 권리

FA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 그렇다. 윤성환(삼성) 80억 원, 장원준(두산) 84억 원, 최정(SK) 86억원까지 치솟았다. 보상선수와 보상금액을 더하면 사실상 100억원에 이른다. 직장인의 꿈인 로또가 평균 20억이라고 치자면 이들은 1등을 네 번씩이나 적중한 격이다.

나란히 9시즌을 활약한 장원준은 통산 85승, 윤성환은 82승을 올렸다. 최정은 30홈런을 쳤던 시즌은 없었다. 그래도 몸값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폭등했다. 144경기 확대, 10구단 kt 창단, 타 구단의 수요 증가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몸값을 올린 것은 선수가 아니라 구단이라는 사실이다. FA제도 도입 이후 탬퍼링(사전접촉)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역대로 "그쪽보다 무조건 더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은 몸값 상승의 주범이었다. 오죽했으면 롯데가 장원준이 시장에 나가자 최종 제시액 88억 원을 공개했을까.

많은 돈을 받은 FA 선수들을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프로선수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이다. 후배들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동기부여는 없다. 몸 관리 잘하고 훈련에 매진해 우등 성적을 내고 로또를 맞는다면 칭찬받을 일이다. 다만 사회적 공헌활동도 잊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매년 그렇듯 찜찜한 대목은 잊혀지는 FA들이다. FA 자격은 팀을 옮길 수 있는 권리이다. 9년 간 한 팀에서 뛰면서 고생했으니 제대로 대우받고 뛰고 싶은 구단을 택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이 훌륭하지 못한 이유로 발목이 묶여있는 선수들이 많다.

엄연히 급수가 다른데도 100억짜리 선수와 똑같은 보상 체계 때문이다. 무조건 보상선수 1명을 내주기 때문에 다른 구단이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한다. 결국 선수는 은퇴위기에 몰리거나 원 소속구단의 아량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FA도 등급을 매겨 보상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이들에게도 팀을 옮길 자유를 주자.

/OSEN 야구전문기자

윤성환

장원준

최정

박주영 풀타임 뛰었지만…

알 샤밥, 알 타원에 1-2 역전패

슈틸리케호의 중동원정에서 복귀한 박주영(알 샤밥·사진)이 복귀 후 첫 소속팀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했다. 그러나 골맛은 보지 못했다.

알 샤밥은 1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프린스 파이살 빈 파흐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사우디아라비아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알 타원에 1-2로 역전패했다.

박주영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를 따내지 못한 채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다만 이날 경기를 통해 박주영이 팀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은 것이 그나마 수확이다. 박주영은 지난 10월31일 치러진 알 라에드와의 9라운드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출전했다.

알 샤밥은 알 나스르에 이어 리그 2위를 지키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프로농구 전적 (01일)

팀	1Q	2Q	3Q	4Q	합계
LG	14	25	11	27	**77**
모비스	15	26	25	19	**85**
신한은행	25	14	10	10	**59**
삼성	13	16	16	18	**63**

프로배구 전적 (01일)

홈	점수	점수	원정
흥국생명	3	0	KGC인삼공사
대한항공	1	3	삼성화재

〈글래디에이터〉감독 작품

놓쳐서는 안될 단 하나의 걸작!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서사가 펼쳐진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12월 3일, 3D & 4D 대개봉

#EXODUSMOVIE 12세이상관람가